

NEWS 방송계 동향

한국방송협회

제43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SBS '한국형 전투기 KF-X 관련 단독 및 연속보도'



SBS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단독 및 연속보도가 제43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방송협회는 7월 20일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심사 결과

를 발표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경쟁을 거쳐 출품된 253개 작품 중 SBS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단독 및 연속보도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SBS의 해당 보도가 KF-X 사업의 부실을 조기에 밝혀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여론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상에는 △시사보도TV부문 KBS <시사기획 창-2016 정치개혁> △장편드라마TV SBS <육룡이 나르샤> △중단편드라마TV KBS <태양의 후예>, MBC <그녀는 예뻤다> △연예오락TV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TV EBS <다큐프라임-넴버스> 등 23개 부문 26편이 선정됐다. 이 밖에 개인상에 △공로상 오승룡(KBS 추천) △보도기자상 안정식(SBS) △아나운서상 박재홍(CBS) △연기자상 황정음(MBC 추천) △코미디언상 홍윤화(SBS 추천) △가수상 음악대장(MBC 추천) 등 19개 부문 19인이 선정됐다.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9월 2일(금)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KBS

제16·17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 이·취임식



7월 11일 KBS 신관 공개홀 로비에서 제16·17대 협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많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의 축하, 격

려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종석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진취적 대안들을 통해 방송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17대 KBS 방송기술협회의 높은 비상을 기대해 본다.

SBS

SBS, '3분기 조화'에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 강조

SBS는 7월 5일 목동 SBS 방송센터 SBS홀에서 3분기 조화를 개최하였다. 김진원 SBS 사장은 인사말에서 "경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S-TF 결과에 따라 낡은 조직과 제도, 조직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서 김 사장은 콘텐츠 경쟁력 회복을 강조하며 8월 개편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비용관리에 유의해 줄 것과 TV, 라디오에 국한하지 말고 UHD, VR, 모바일 등 차세대 기술과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하였다.

MBC

MBC, 중국 선양에 세계 방송사 최초 '지사 설립'



MBC가 세계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중국 선양에 사무실을 설립했다. 신봉섭 총영사는 "선양은 우리 옛 선조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근대에는 항일 독립투사들

이 활동한 역사적인 곳"이라 말하고 "북한과 1,400여 km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동북 3성에 중국 이외의 방송사 지사가 설립된 것은 전 세계 방송사 가운데 MBC가 처음"이라며 중국이 MBC 지사 설립을 허가했다는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북·중 관계 및 북한의 내부 변화는 물론, 한중 경제 교류와 한류 현장을 생생하고 빠르게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고속버스 좌석별 위성방송서비스 론칭!



KT스카이라이프는 기아자동차와 프리미엄 버스에 170여 개 차대별 초고화질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개인별로 제공되는 위성방송서비스는 오는 9월

12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프리미엄버스에 우선 적용한다. 승객은 좌석별 개인 모니터를 통해 뉴스와 드라마, 스포츠, 어린이 채널 등 다양한 장르의 실시간 채널을 즐길 수 있다.

CBS

제25대 CBS 방송기술인협회장 취임



2016년 7월 1일부터 성기승 부장이 제25대 CBS 방송기술인협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미디어 환경 속에서 CBS 방송기술인들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 성기승 협회장은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2018년 6월까지 CBS 방송기술인협회를 대표해서 활동할 계획이다.

BBS

BBS 불교방송-스리랑카 DTV 교류협력



BBS는 스리랑카 DTV와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미디어로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스리랑카 불교계 재단이 운영하는 DTV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양 방송사 측이 이룬 시일 내 MOU를 체결하고 DTV의 연내 개국과 프로그램 교류 등에 상호 협조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스리랑카 DTV의 크리스타 히셀라 국장은 “연내 새로운 TV 채널을 개국하려 한다.”며 BBS의 협력을 요청했다. BBS 불교방송은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담아내면서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도약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TN

리우 브라질올림픽 선수촌에 YTN 실시간 송출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1회 하계 올림픽의 선수촌에 한국어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YTN의 방송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EBS

EBS 공교육 보완 및 강화를 위한 EBS-SK 공동 사업 업무 협약 맺어



지난 6월 24일 EBS는 방과후 학교 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한 EBS-SK 간 공동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양사는 공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

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BS는 방과후학교에 맞는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SK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과후학교 시장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TV 'UN 채널 런칭 1주년' 기념 특집방송



아리랑TV는 'UN 채널 런칭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리랑TV는 지난해 7월 14일, 한

국방송 사상 최초로 국내 시사현안을 보도하는 영어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편성, 'UN 채널(UN In-house Network)' 방송을 시작했다. 아리랑TV는 14일 전·후로 뉴욕 UN본부 현지 취재를 통한 특집 뉴스를 집중 편성하였으며, 특집 다큐멘터리 'Arirang Special, The Messenger'에서는 UN에서 아리랑TV가 공공외교관으로서 펼친 지난 1년의 행보와 성과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OBS

제6대 OBS 방송기술인협회장 및 회계감사 당선인 결정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6대 OBS 방송기술인협회장 및 회계감사 투표를 진행하여 단독후보로 출마한 조봉기 차장과 회계감사 김재진 감독이 각각 92.3%, 97.4% 찬성률을 기록하여 당선이 결정되었다. 임기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로 OBS 기술인의 명성을 넓히기 위해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할 예정이다.

OBS와 SMR(Smart Media Rep), 콘텐츠 유통 계약 체결



OBS는 지난 7월,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위하여 MBC와 SBS가 공동출자해서 만든 온라인 광고대행사 'SMR'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SMR에는 타 지상파 사업자 및 종편, CJE&M와 함께 9번째 콘텐츠출처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OBS는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해 100% 종합편성에 맞는 유익한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